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통정 기능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Bibliographic Control in National Library of Korea

정연경(Yeon-Kyoung Chung)**, 최윤경(Yoon-Kyung Choi)***

【초 록】

본 연구는 선진국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지통정 조직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지통정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 국립도서관의 정의와 역할, 서지통정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고 사례조사에서는 미의회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덴마크 왕립도서관,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지통정 관련 부서의 운영 방안과 주요 업무를 분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통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독립적인 서지통정 전담 부서의 설치, 둘째, 서지데이터의 고품질화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셋째, 서지통정의 제반 연구 기능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서지통정, 서지데이터, 국립도서관, 미의회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덴마크왕립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덴마크 서지센터, 국가서지정보센터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division and its operation related to bibliographic control in national libraries and to propose several ways to strengthen its functions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based upon the analysis. Literature reviews were carried for the definitions and roles of national libraries and their bibliographic control. The divisions of bibliographic control in Library of Congress, British Library,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the Royal Library of Denmark, and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analyzed. Three methods for strengthening bibliographic control in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of all, need of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bibliographic control center, secondly, high quality of bibliographic data and collabo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third, strengthening of research i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

【Keywords】

Bibliographic Control, Bibliographic Data, National Library, Library of Congress, British Library, Danish Royal Library,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National Library of Korea, Danish Bibliographic Centre, National Bibliographic Control Center

1. 서론

인터넷, 검색 엔진 기술, 전자 정보원의 증가는 출판과 도서관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디지털 세대의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삶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것처럼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쇄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 환경으로의 진화는 정보 접근을 위한 서지통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Library of Congress(2007)에서는 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을 조직하고 2007년 11월에 서지통정의 미래에

* 본 연구는 2010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제1저자,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yunee20@gmail.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0년 8월 5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9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9월 25일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동 작업을 통해 분산화되고 국제적인 범주로 통합되어 웹기반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서지통정의 미래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인쇄와 디지털 출판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서지 통정에 대한 개념, 목적과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는 국립도서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1.1 연구의 필요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가 서지 데이터의 작성 및 제공 강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웹으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서지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제공, 국가 선거데이터 확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국가 서지에 수록 대상 자원을 확대시키고, 고품질의 서지데이터 구축을 위한 신규 기준을 도입·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116).

외국의 경우, 국가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서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서지데이터 작성 및 관리체계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002년에 유럽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립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설문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국가서지센터를 꼽았으며, 이를 중요한 미래 핵심 기능으로 간주하였다(Ambrožič 등 2003). 실제로 유럽 21개국의 국립도서관 중 일부는 서지센터를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서지 데이터의 작성 및 표준화가 국가대표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4년 이후 신매체 자료 및 기증 자료의 증가와 전문적인 목록 인력의 부족 문제를 들어 미정리 자료를 포함한 편목이 까다로운 자료에 대해 외주용역을 주는 아웃소싱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아웃소싱을 통해 제공받은 서지레코드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가 서지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의문스럽게 되었다(노문자 200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2010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으로 신뢰성 높은 서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서지정보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단을 설치하였다.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가 명시된 바와 같이 서지통정

기능은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써의 핵심 업무이자 존립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역사적 유산을 표준화된 고품질의 서지 데이터로 제공하는 국가서지정보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 이는 곧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선진국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서지정보 관련 부서의 조직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서지통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서지정보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통정 기능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 국립도서관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서지통정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다양한 매체의 자료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서지통정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해 외국 국립도서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지통정 관련 부서의 운영 방식과 주요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과 영국의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덴마크의 왕립도서관(The Royal Library of Denmark),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국립도서관의 서지통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 내부에 하위 부서를 설치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독립적인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지통정 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서지통정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 연구

본 연구는 국립도서관이 왜 서지통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 및 기능을 다룬 연구와 국내외 국립도서관의 서지통정 활동을 다룬 연구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국립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룬 연구들은 각국 도서관 관련법에 기재된 국립도서관의 주요 역할이나 유네스코의 지침에서 제안했던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서지통정 기능이 도서관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임을 밝혀주었다(Kent 1968, 94-113; Lor 1997). 최근 연구로서 2002년에 유럽 21개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재 책임지고 있는 국립도서관의 핵심 기능과 향후 우선되어야 할 기능, 그리고 계속 평가되어야 할 핵심기능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가서지센터로서의 기능이 국립도서관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기본 역할로 나왔다(Ambrožič 외 2003).

국내에서는 국립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기본 역할과 기능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광동철(2004)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기별 기능과 조직 구조의 변천사와 함께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역할을 조사하였고, 안인자 등(2008)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의 직무를 분석하여 핵심 업무를 도출하였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 기능으로 모두 국가의 문헌 수집과 국가서지 작성 업무를 꼽았다.

한편, 국립도서관의 서지통정 기능을 다룬 연구들은 국외와 국내의 연구 내용이 다소 달랐다. 외국에서는 다수의 국가에서 자국의 납본제도나 국가서지, 서지표준화 측면에서 국립도서관의 서지통정 현황을 조사하여 소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에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국립도서관의 서지통정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국립도서관은 조직 체계의 측면에서 서지 통정 부서를 총 3개부로 구성하고, 각 부 아래 하위 팀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분산식 조직을 폐지하고, 다양한 편목 활동을 단일 부서에서 하는 통합식 조직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McKeen & Parent 2000).

미국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미래에 서지통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Library of Congress 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 2007). 미래의 서지통정은 공동 작업으로 분산화된 국제적인 범주의 웹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데이터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되고 변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서지통정 또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서는 반드시 정보 제공자로서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이러한 미래로 바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영역에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전체 공급망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활용의 최대화와 서지 레코드 공유의 확대, 상호협력의 증가를 통한 모든 도서관의 서지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고부가 가치 활동으로의 노력으로 전이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잘 볼 수 없거나 잘 사용되지 않았던 희귀본이나 독특한 자료를 보여주는 지식 창조의 가능성 확대를 들었다. 셋째는 월드와이드웹이 기술의 플랫폼과 기준의 전달을 위한 적합한 플랫폼임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기술을 미래로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다른 이용자가 공급하는 정보를 정보원의 기술로 평가하고 촉진함으로써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교육과 구조를 통해 도서관 전문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Marcum(2008)은 LC의 편목 업무에 관한 동향과 유관 기관 간의 협력 행태를 고찰하고, 국가서지통정센터로서 LC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안하였다. 또한 LC의 참고사서와 다른 국가의 사서들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정보 매체를 포함해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서지통정 관련 정책 및 규칙, 방식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2004년에 목록 업무를 아웃소싱한 이후부터 국립도서관의 서지통정 기능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옥과 노옥립(2004)은 전국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목록 업무 아웃소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노문자(2004)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아웃소싱 현황을 조사하여 아웃소싱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미의회 도서관 출판물내 목록정보(Cataloging In Publication, CIP)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LC와 미국 대표 서지유틸리티인 OCLC와의 협력 동향을 조사한 연구(윤정옥 2005)와 국립중앙도서관의 CIP 레코드와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비교 분석하여 품질을 평가한 연구(김선애 2009)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정리 업무의 아웃소싱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사서직의 정체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센터로서 양질의 CIP 레코드와 서지레코드, 전거레코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국립도서관의 서지통정과 관련하여 각 국가별 국립도서관의 서지

통정 활동을 고찰하거나 향후 서지통정이 어떻게 변화해야하고 그 속에서 국립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룬 연구 등 다양한 쟁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 기능과 역할, 목록 아웃소싱을 통한 서지통정의 문제, CIP 제도의 정착화와 품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통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과 비교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서지통정과 국립도서관

2.1 서지통정의 필요성

서지통정은 목록 규칙을 비롯하여 분류 체계, 주제명 표목표, 시소러스, 전거통제 등 다양한 정보 조직 도구가 상호 연결되어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정보로 접근하고 이용을 도모하는 정보 조직의 집적체라고 할 수 있다. 서지 통정은 서지 제어, 정보 조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문헌정보학용어사전(2010, 196)에 따르면 출판물에 대한 서지 사항의 기록, 서지 기술의 표준화 업무 등 서지 작업 전반을 뜻한다. 또한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2003, 35-36)에서는 출판물을 서지데이터 상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나열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을 총칭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지통정은 학문적으로 문헌정보학의 다양한 하위 영역, 크게 서지기술규칙, 분류체계, 주제명 표목, 전거 통제, 기계 가독형 목록을 포함한다. 한국목록규칙 제 4판(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3, 267)에서도 서지통정을 서지 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기록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각종 목록이나 서지 등의 2차 자료나 3차 자료의 작성, 컴퓨터에 의한 서지정보의 축적 등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Taylor와 Joudrey(2009)는 서지 세계의 아이템을 기술하고, 기술 과정에서 이름, 서명, 주제 등의 접근점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실제 아이템에 대한 대응물로 제공될 수 있는 레코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han(2007, 540)도 서지통정을 정보 검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정보를 조직하고 배열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색인과 목록, 분류는 서지통정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서지 통정은 크게 두 개의 과정인 문헌 파악과 서지 기술로 이루어진다(根本彰 2003, 19-23). 먼저, 문헌 파악이란 통정의 대상이 되는 문헌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지 기술을 위한 선행 과정이자 서지통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다. 도서관마다 문헌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납본법에 의거하여 망라적이고 포괄적으로 문헌을 수집하고 국가서지를 작성하며 납본법 이외에도 도서관 차원에서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여 자료를 구입하거나 기증받기도 한다.

다음으로 서지 기술은 수집 문헌에 대한 서지적 속성을 추출·기술하고, 접근점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접근점은 저자명, 서명, 주제명, 발행자, 페이지 수, 발행년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제는 사서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점들과 구별된다. 서지 기술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지 기술 규칙들이 필요한데, 목록규칙, 전거통제, 표준식별 기호, 번자법, 분류법, 주제명표목법, 접근점의 배열 규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서지통정의 기능은 정보 검색 도구로써 실제 정보원에 대한 지시자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정보원을 직접 접하기 전에 서지 레코드를 통해 정보의 잠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더 나아가 서지 레코드가 서지, 목록, 색인, 검색엔진 등 다양한 검색 도구에 저장되고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정보원으로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Taylor와 Jourdrey(2009, 5-7)는 현대 서지통정의 기능상 요건을 6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이용 가능한 모든 유형의 정보원에 대한 존재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단일 정보원을 구성하는 하위 저작들에 대해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 있는 자료들 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표준화된 인용 규칙에 의거하여 서지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원에 대한 서명, 주제, 저자와 더불어 여타의 유용한 접근점을 전거통제나 주제명표목, 각종 문헌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원에 대해 소재 지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통적으

로 서지나 색인에서 인쇄 매체의 정보원은 소재 지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최근 인터넷 정보원이 급증하면서 해당 URL 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6가지 서지 통정의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적으로 정확한 서지 데이터 기술이 이루어져야 하고, 양적으로도 데이터가 풍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2 국립도서관의 기능

문헌정보학용어사전(2010, 54)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하며 봉사범위가 전체 국민에 이르는 도서관을 지칭한다. 윤희운(2006: 2009)은 국립도서관을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이고, 정부예산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며, 자국의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했으며, 자국을 대표하는 지식정보센터로서 지식문화유산의 보고라 하였다.

국립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국가마다 성립과정이 다르고, 현재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국가에서 발행된 문헌의 수집과 납본, 문헌의 국제 교환, 국내 도서관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국가서지 간행, 서지정보봉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Olson(1996, 1)은 국립도서관의 4대 주요 기능을 국내 인쇄자료의 레포지터리, 국가서지센터, 외국 자료의 망라적 수집, 우수한 소급자료의 확보라고 하였다. 윤희운(2006)도 국립도서관은 납본을 전제로 자국 출판물의 수집·보존·접근을 충실히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는 구심체로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로 국가서지발간을 꼽았으며 그 나라 관련 책들을 포함해 다양하고 대표적인 외국문헌을 수집하고,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바 있다(Lor 1997).

그러므로 서지통정은 국립도서관의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국립도서관은 자국의 서지데이터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 서지를 주관하는 책임 기관으로서 국내 도서관에 국내 문헌의 서지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핵심 서지유틸리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1950년 파리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Improvement of Bibliographic Services'에서 각 국가에 서지정보센터를 국립도서관 내부 부서나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 외부 기

관으로 두도록 권고한 것에 이미 나타나 있다(Kent 1968, 103-104).

더 나아가 듀이십진분류표나 미의회도서관 주제명표 목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조직 도구에서도 분류 항목이나 주제명을 설정할 때, 각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지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립도서관의 서지통정은 특정 국가 내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지적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서지통정 기능을 강화한다면 서지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외 국립도서관의 서지통정

3.1 미국

3.1.1 개요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은 의회에 소속된 미국의 국가 대표 도서관이다. LC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US Code』의 "Title 2: The Congress"로, 제 5장 132조에 LC가 일반도서관과 법률도서관으로 구성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LC는 1800년 4월 24일 미합중국 의회의 도서관으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전쟁과 화재로 인해 소실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현재 세계의 지식정보와 미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정리·보존·서비스하는 국가 도서관이 되었다(윤희운 외 2008, 42). LC는 2009년 기준으로 144,562,233점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6천 5백만 달러에 육박한다(Library of Congress Homepage, "About the Library").

3.1.2 서지통정 부서 및 운영

LC의 서지통정 업무는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의 수집·서지접근부(Acquisitions and Bibliographic Access, 이하 ABA)가 담당하고 있다. ABA는 주로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조직 및 정리와 같은 서지통정 업무와 더불어 서지 접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이끌고 도서관 및 관련 기관을 위한 표준 개발, 교육 및 교수 설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수는 641명이다(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and Acquisitions Homepage, "About the Organization"; Library of Congress 2009).

특히 서지 통정 측면에서, ABA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서지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단행본을 포함한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컴퓨터 파일 등 각종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에 대해 주제 분석, LCC 분류기호 할당, 장서 목록 및 청구기호 제공, DDC 기호 부여 등 기술 목록을 작성한다. 또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도서관계를 위한 목록 정책을 수립하고, PCC 프로그램의 사무국을 운영하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공동 편목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목록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목 문서를 개발·배포하고 전 세계의 목록 사서 및 관련 담당자들에게 목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ABA는 2008년 10월 이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종전에 양분된 수집부와 서지접근부가 통합되어 신설되었다. 현재 총 10개의 하위 부서

인 수서 회계·지원과, 미국·앵글로과, 게르만·슬라브과,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서유럽과, 아시아·중동과, 협력·교육프로그램과, 해외운영과, 정책·표준과, 미국·출판사 리에종과 미국 일반과를 두었다. ABA의 하위 부서별 주요 업무는 <표 1>과 같다. 수집부는 지역별로, 서지접근부는 주제별로 구분하여 운영했던 과거의 조직과 비교할 때, 현 조직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집 지역을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고, 지역별로 수집과 목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3.2 영국

3.2.1 개요

영국은 1850년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도서관법』을 제정하여 근대도서관을 탄생시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건물로 국립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1753년에 제정된 『박물관법』에 의거하여 런던에 국립 대영 박물관이 설립되었고 하부 조직으로 대영박물관 도서

<표 1> ABA의 부서별 업무

하위 부서명	주요 업무
수서 회계·지원과 (Acquisitions Fiscal and Support Office)	• 예산의 집행·운영
미국·앵글로과 (U.S./Anglo Division)	• 구입 또는 수증을 통한 영미권 국가의 자료 수집과 해당 자료의 편목 • 희귀자료, 각종 정부기록물, 도서관의 기념물, 특수 장서 등을 포함함.
게르만·슬라브과 (Germanic and Slavic Division)	• 해당 지역의 자료 수집 및 편목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서유럽과 (African, Latin American and Western European Division)	• 해당 지역의 자료 수집 및 편목
아시아·중동과 (Asian and Middle Eastern Division)	• 해당 지역의 자료 수집 및 편목
협력·교육프로그램과 (Cooperative and Instructional Programs Division)	• 내부 및 외부 교육, 협력 목록프로그램(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PCC)과 National Union Catalog of Manuscript Collections(NUCMC))에 대한 교육 및 조정
해외운영과 (Overseas Operations Division)	• 외국에서 발간된 자료의 효과적 수집을 위한 해외 설립 사무소의 운영·관리 • 현재 카이로, 이슬라마바드, 자카르타, 나이로비, 뉴델리, 리오 등지에 사무소가 있음.
정책·표준과 (Policy and Standards Division)	• 전반적인 도서관의 편목 및 수집에 대한 정책 제공 • 서지 산출물 및 관리 도구에 대한 지원·개발 • 주제 분류에 대한 제안사항 처리 • LC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의 유지·관리 • 각종 문서화 및 웹사이트 관리
미국 출판사 리에종과 (U.S. and Publisher Liaison Division)	• 저작권과 CIP 자료, ISSN 부여 과정을 통해 들어온 자료에 대한 편목 • CIP와 ISSN 배정 및 관리, 법률자료의 편목
미국 일반과 (U.S. General Division)	• 저작권 및 CIP 자료의 편목 • DDC 구성 및 체제에 대한 지원

* 자료: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and Acquisitions Homepage, "About the Organization" [online]. [cited 2010.8.10]. <<http://www.loc.gov/aba/about/>>.

관부문이 설치되어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1842년에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납본제도가 확립되면서 장서가 급증하게 되자 대영박물관은 소장 자료의 분산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런던 콜린데일에 신문도서관과 영국국가서지국(BNB: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등이 분관체제로 도서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분관으로 인한 자료 분산 문제가 발생하자, 1972년 『영국도서관법』이 제정되었고, 1973년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이하 BL)이 탄생하였다(윤희운 2006). 현재 BL은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지적,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국 내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수준의 적절한 정보 접근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정보 요구자에게도 원격 대출 및 원문복사서비스를 실시하는 세계적인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BL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을 납본 받고 있으며 약 1억 5천만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British Library Homepage, "About Us").

3.2.2 서지통정 부서 및 운영

BL에서 서지통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운영서비스국(Operations and Services) 아래 장서수집·기술부(Collection Acquisition and Description)로, 하위에는 장서처리(Collection Processing) 부서와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 부서가 있다(British Library 2009, 28-29). 서지통정을 전담하는 서지개발구현 부서는 영국국가서지(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이하 BNB)를 발행하고,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서비스하며, 메타데이터나 목록 규칙과 같은 서지표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영국도서관법(1972)에 따라 BL이 국립도서관으로서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BNB는 미국과 아일랜드 전역의 지적 산출물을 접근·이용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납본 자료뿐 아니라 BL의 소장 장서에 대한 목록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대상 자료는 전통적인 인쇄 매체 자료와 함께 2003년 이후의 변경된 납본법에 따라 전자출판물도 포함시키고 있다. BL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지 데이터는 국제 서지 표준에 따르고 있으며, 양질의 서지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용화하여 판매하기도 한다(British Library Homepage, "Metadata Services").

BNB는 1950년 이후부터 신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 대한 서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출판사는 새로 발간한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을 납본법에 따라 반드시 BL의 납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AACR2에 따라 편목하고 LCSH와 DDC 22판의 분류기호를 부여하게 된다. 특징은 Legal Deposit Libraries Shared Cataloguing Programme(LDLSCP)에 따라 BL과 납본법에서 지정한 5개 도서관, 즉, National Library of Scotland와 National Library of Wales, Bodleian Library Oxford, Library of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of Trinity College에서 국가서지를 상호 협력하여 분산해서 작성한다는 점이다.

BL에서는 구축한 양질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상업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서지데이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업적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도 하고 있다. 또한 편목과 관련된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과 목록 규칙을 개발·관리하면서 전자통제와 주제명표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도서관 간에 서지데이터 공유 및 교환이 용이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3.3 덴마크

3.3.1 개요

덴마크 왕립도서관(Danish Royal Library)은 1648년 Frederik 왕이 유럽 관련 장서를 수집하였던 것을 시초로 1793년 공공에게 개방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 코펜하겐 대학도서관, 2005년에는 국립과학·의학도서관과 합병하였다. 2006년 1월에 왕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8년에는 덴마크 민속 아카이브와 합병되었다. 덴마크 왕립도서관은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덴마크와 외국에서 발행된 출판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연구 및 학습 측면에서 보유한 장서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및 문화적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도서관 업무 및 소장 장서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덴마크 왕립도서관은 국가의 대표도서관이자 코펜하겐 대학도서관으로 국립도서관의 기본적인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대학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펜하겐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도서관 예산은 약 3만 2천 5백만 크로나(한화 약 68억 원)이며, 총 직원 수는 622명이다(The Royal Library 2009).

3.3.2 서지통정 부서 및 운영

덴마크 왕립도서관은 1851년부터 덴마크에서 발행된 도서와 정기간행물 목록을 국가서지로 작성해 온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482년부터 1850년까지 소급 서지를 추가 작성하였다(Det Kongelige Bibliotek 2009). 20세기에는 수집 범주를 확장하여 인쇄 및 디지털 형태로 된 거의 모든 매체를 수록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관련해서 나온 모든 도서와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국가서지가 왕립도서관의 OPAC REX와 덴마크 종합목록인 "bibliotek.dk"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덴마크 도서관의 모든 자료로 접근을 제공하는 시민의 포털로 모든 자료는 개별 도서관에서 전자 대출 신청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덴마크의 국가서지는 정기간행물과 지도, 음악 자료 등 특수 자료에 대해서는 왕립도서관 내부 부서인 납본부(Department of Legal Deposit), 매뉴스크립트·희귀도서부(Department of Manuscripts and Rare Books), 지도·사진부(Department of Maps, Prints and Photographs), 음악·공연부(Music and Theatre Department)가 담당하지만, 일반도서, 문서, 시청각 자료는 덴마크서지센터(Danish Bibliographic Centre, 이하 DBC)에서 작성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서지의 운영 및 개발을 통한 국가의 서지 통정 역할은 DBC가 일임하고 있다.

DBC는 1991년에 설립된 문화부 직속 기관으로써 덴마크의 문화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서지센터이다(Danish Bibliographic Centre Homepage, "About DBC"). 조직은 사업 단위 기준으로 IT 개발부, IT 제공부, 데이터부, 시장·서비스부인 4개 하위 부서와 재무·서비스, HRM인 2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이 중 서지통정을 담당하는 데이터부는 총 6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지데이터의 입력과 관리, 국가서지와 도서관 목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지자문위원회와 하위 부서로 데이터 처리 및 문서팀, 단행본·오디오·네트워크자료팀, 단행본·영화·멀티미디어자료팀, 음악자료팀이 있어, 자료 유형에 따라 전문화된 인력이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다. DBC는 국가서지 작성 이외에도 덴마크 전역 도서관 서비스의 통합서지시스템으로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덴마크의 국가목록시스템인 DanBib의 운영과 개발

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대차, 서지 데이터의 재활용, 적합한 외국 데이터베이스로의 검증과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질의 서지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제공한다.

3.4 일본

3.4.1 개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이하 NDL)은 미국의 LC와 같이 입법부 소속이다. 1872년 설립된 문부성 소속 제국도서관과 1890년 구 헌법 하의 제국의회에 소속된 양원의 부속도서관으로 1947년 4월 30일자로 『국회법』(법률 제49호)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 130조에 '의원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1948년 12월 9일자로 『국회도서관법』(법률 제5호)이 제정되어 NDL은 일본의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윤희운 2008, 134). NDL 동경 본관은 국내 모든 출판물을 납본제도로 수집하고, 서지를 작성·배포하며 서지 정보와 다양한 원문을 정부 부처와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동경 본관 이외에도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과 국제어린이도서관, 지부도서관을 두어 국가 기관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DL은 2008년 3월 기준, 9백만 권 이상의 단행본과 천 2백만종 이상의 정기간행물, 9백만종에 육박하는 마이크로필름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2010년 기준 약 197억 엔(한화 약 2,700억)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National Diet Library Homepage, "NDL Profile").

3.4.2 서지통정 부서 및 운영

NDL에서 서지통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관장 및 부관장 아래 수집·서지부(Acquisitions and Bibliography Department)이다. NDL은 2002년 4월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서지통정 업무를 서지부로 집중시켰으며, 서지부의 핵심 하위 부서로 서지조정과를 신설하였다(橫山幸雄 2005, 232). 이후 수집부와 서지부는 2009년 4월에 운영 효율화를 피하기 위해 수집·서지부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National Diet Library 2009). 수집·서지부는 납본제도를 통해 기증받은 자료를 포함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과 목록 작성, 보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수는 179명이다. 수집·서지부의 하위 부서로

는 수집·서지조정과(Acquisitions and Administration Bibliographic Control Division), 국내자료과(Domestic Materials Division), 연속간행물·특수자료과(Serials and Non-book Materials Division), 외국자료과(Foreign Materials Division), 보존과(Preservation Division)가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조직규칙(國立國會圖書館組織規則)』에 따르면 5개 부서 중에서 서지통정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수집·서지조정과이다. 수집·서지조정은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유지 관리, 서지통정 관련 규칙의 작성 및 갱신, 서지데이터의 제공 방침 수립, 서지표준화 등 서지통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장서 구축 및 전자정보 선정에 관한 정책 수립과 NDL의 자료 수집 계획 개발, 납본제도 운영, 전거데이터 관리 및 제공, 수집된 전자정보의 열람 목록 작성 및 관리 등도 수행한다(國立國會圖書館 2009, 250-251).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유형이나 발행국에 따라 국내정보과, 연속간행물·특수자료과, 외국정보과로 이관된다. 이 부서들은 수집한 자료를 접수하고, 분류하며, 표목에 대한 전자 데이터를 작성하며, 서지데이터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국내정보과는 일본에서 생산된 인쇄 및 전자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속간행물·특수자료과는 일본 연속간행물을 접수하고 청구기호와 ISSN을 부여하며, 국내외 전자 자료 및 비도서 자료를 조직하고 서지데이터를 유지·관리한다. 외국정보과는 외국 자료나 외국 도서관으로부터 기증 받거나 구입한 자료를 총괄 관리한다. NDL은 2000년 이후부터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서지데이터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국내 서지 통정 및 서지데이터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3.5 한국

3.5.1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조선총독부도서관'을 모태로 1945년 10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1963년 도서관법 공포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1991년에 제정된 『도서관진흥법』 제 16조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이 되었다. 1965년부터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라 납본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88년 서울시 반포동에 본관을 신축 이전하였다. 1991년에는 『도서관진흥법』이 법률 제4352호로 공포되고, 이어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342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문교부(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4년 3월에는 법률 제4746호에 의해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 통합정보시스템 KOLIS를 가동하고, 2003년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도서관문화혁신위원회'를 결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기능 조정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6년 6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2007년 5월 도서관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9년 5월 디지털도서관을 신설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지식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보존·제공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구체적으로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 관리, 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도서관직원의 교육 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그 밖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활동은 국가대표도서관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으로 납본, 구입, 기증, 국제교환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장 장서 수는 7백 6십만여책, 1일 평균 이용자 수 2,288명, 예산은 1,328억 원에 달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09, 3-11).

3.5.2 서지통정 부서 및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정 역할은 현행 『도서관법』에 명시되었는데, 크게 9개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둘째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셋째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넷째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다섯째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여섯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일곱째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여덟째 그 밖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필요한 업무, 아홉째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이다(곽동철 외 2009). 특히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가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 역할로 정의된 것은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서지 통정 기능은 핵심적인 기능과 업무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서지통정을 전담하는 독립 부서가 따로 없고, 자료 관리부 아래 자료기획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자료기획과의 업무는 크게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료수집 기능으로, 자료장서개발 계획 수립 및 운영, 인쇄 및 전자 자료

납본 수집, 기증 및 구입 자료 수집, 국외소재 한국관련 자료 영인 수집, 국제자료 교류 및 수집이다. 둘째는 자료정리 기능으로, 납본 및 수집자료 등록 및 관리, 분류 및 목록 작성, 주제명, 전거데이터, 목차데이터 작성, 주제명표목표 관리, 분류 및 목록 표준화, CIP 제도 운영, 국가서지 제작 및 배포이다. 셋째는 서지표준화 기능으로 서지표준화 정책 수립 및 시행, 서지표준화 연구·개발과 국내외 관련 기관 간 협력, KORMARC 제·개정 및 운영·보급, 서지레코드 관련 표준 개발보급, 한국목록규칙(KCR), 한국십진분류(KDC) 제안, ISBN, ISSN 배정 및 운영이다.

그러나 아웃소싱을 통한 서지레코드의 품질 저하와 국가서지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국가서지통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2010년 2월에 국가서지정보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서지정보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게 되었다. 국가서지정보센터추진단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임시 조직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분류·목록, 전거데이터 및 주제명표목표 작성 및 관리, 목차·표지 DB 구축, 분류·목록 표준화, CIP 운영, 국가서지 제작 및 보급, 도서관자료 원부 작성, 도서관 장서 통계 작성, 도서관 자료 등록 및 장비 등 기존 자료기획과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3.6 비교 분석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3가지 측면인 조직 운영, 서지데이터 관리,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서지통정 담당 부서의 규모와 조직 구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둘째 서지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관련 부서의 서지데이터 생성 및 관리 현황과 아웃소싱 실태를, 셋째 연구 기능 측면에서는 서지통정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3.6.1 조직 운영 측면

사례 조사 결과, 미국의 LC는 수집·서지접근부, 영국의 BL은 장서수집·기술부, 일본의 NDL은 수집·서지부, 덴마크의 왕립도서관은 DBC에서 서지통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서지접근부서 안에 10개의 하위 부서를, 일본은 관장 아래 직속 기구로 수집·서지부 하위에 5개의 하위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덴마크는 왕립도서관 이외에 문화부 직속의 독립 기관으로 덴마크서지센터(DBC)를 두어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이나 기록관 등 다양한 문화 유산기관이 수집하는 자료에 대해 중앙집중식으로 서지데이터를 생성·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지 정보 서비스를 창출·제공하고 있었다.

서지통정 담당 부서의 인원수를 비교하면, 미국은 수집·서지접근부에 641명, 영국은 운영·서비스부에 997명, 일본은 수집·서지부에 179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덴마크의 서지센터(DBC)는 직원 수가 160명이며, 국가서지 작성 및 서지 통정 담당 부서인 데이터과에만 총 직원 수의 과반수 가량인 78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가의 지식 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는 아웃소싱 이후 서지데이터의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체계를 보면, 서지통정 업무는 자료관리부 아래 자료기획과가 하위부서 없이 수행하던 중 2010년 2월 국가서지정보센터 추진단이 국가서지통정의 핵심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서별 인원수를 비교하면 외국 도서관에 비해 한국은 자료관리부의 직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인 10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표 2 참조).

3.6.2 서지데이터 관리 측면

외국의 경우, 국립도서관의 핵심 기능으로 국가서지데이터 작성과 종합적인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이 전문사서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었다. 특히, 덴마크는 분류하기 까다로운 특수 자료는 본관의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비교적 분류하기 쉬운 단행본은 DBC가 담당하고 있었다.

LC도 목록 사서의 부족이란 문제가 있지만, 목록 입력 수준을 다양화시키거나 미국 내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서지 유틸리티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WorldCat을 참조하여 고품질의 서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WorldCat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LC의 서지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참조·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OCLC의 서지 레코드의 질도 결과적으로 더 높아져 서로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있었다. 실제로 LC가 제공하는 목록 데이터를 통해 미국 도서관들은 연간 약 2억 6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표 2〉 국가별 서지통정 관련 부서의 조직 및 규모

	미국	영국	일본	덴마크	한국
운영 및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서비스국 아래 수집·서지접근부로 운영됨. • 수집·서지접근부의 하위 부서는 총 10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 회계·지원과, 미국·앵글로과, 게르만·슬라브과,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서유럽과, 아시아·중동과, 협력·교육프로그램과, 해외운영과, 정책·표준과, 미국·출판사리에종과 미국일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서비스국 아래 장서수집·기술부 하위 부서로 서지개발과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장 아래 수집·서지부로 운영됨. • 수집·서지부는 5개 하위 부서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서지조정과, 국내자료과, 연속간행물·특수자료과, 외국자료과, 보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립도서관 아래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으며, 하위 부서로 목록부서가 운영됨. • 왕립도서관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덴마크서지센터(DBC)가 있음. DBC는 재무 서비스와 인력관리부서인 관리부서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4개 부서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개발과, IT 서비스제공과, 데이터과, 마켓·제품과 • DBC의 4개 부서 중 국가서지 작성을 포함한 서지통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데이터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관리부 아래 자료기획과로 운영됨. • 자료기획과의 하위 부서는 따로 없으며, 자료수집, 자료정리, 서지표준화 기능을 수행함.
인원	641* (수집·서지접근부)	997* (운영·서비스국)	179* (수집·접근부)	67 (DBC 데이터과)	100* (자료관리부)

* 연차보고서에서 서지통정 부서에 대한 정확한 인력 통계치는 제공하지 않아 상위 부서의 인원수를 기재함.

반면,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목록데이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을 주장하면서 2004년 이후부터 정리업무를 아웃소싱하였다. 덴마크를 포함한 외국 도서관과는 달리, 국립중앙도서관은 편목이 비교적 쉬운 단행본 자료는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학위논문, 비도서자료, 교과서, 만화, 아동도서, 교환자료, 구입자료, 기증자료 등 정리가 어렵고, 오리지널 목록을 생성해야 하는 자료들에 대해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문자 2005). 결과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아웃소싱은 목록데이터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서지의 품질을 저하시켰으며,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마저 위협하게 되었다.

3.6.3 연구 기능 측면

외국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기본 업무의 하나인 서지통정 기능의 변화 방향과 이를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 미국의 LC는 국가적으로 서지통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부터 미래 서지통정 실무자 그룹(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을 결성하였고, 21세기 서지기술의 미래에 대한 제반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다가올 정보 기술 환경에서 서지통정과 여타의 다양한 기술 목록이 도서관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접

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LC를 포함한 전 세계 도서관계가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LC의 역할에 대해서도 권고하였다(Library of Congress 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 2007: 3; Marcum 2008). 2007년에 발간한 '미래 서지 통정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에는 서지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회귀본 및 고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기술 적용 방안과 도서관계의 변화 방향, 문헌정보학 전문가의 역량 강화 방안 등 5가지 부문으로 미래 서지통정의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국가 서지의 표준화 관련 연구는 관장 직속 조직으로 도서관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연구소는 서지 표준화 이외에도 도서관 정책 개발, 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통계 및 평가지표 조사, 자료 보존 연구, 고서 수집 및 보존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서지통정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도서관연구소의 연구수행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역력이 없는 실정이다.

4.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통정 기능 강화 방안

4.1 독립된 서지통정 전담 부서 설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2008)에서 현재 분산적으로 행해지는 서지표준 관련 업무 및 기능을 중앙 집중식으로 통합시키고자 ‘국가서지정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10년 2월에 국가서지정보센터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이미 외국의 국립도서관은 국가서지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덴마크와 같이 문화부 직속으로 문화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서지센터를 설치하거나 미국, 일본, 영국 등과 같이 도서관 하위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서지정보 전담부서 운영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국립도서관 내에 독립 조직을 운영하고, 자료수집·서지작성·표준화 관련 업무들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 조직이란 의미는 특정 부서가 업무나 기능을 단위로 하여 하위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일종의 수직·수평적인 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는 뜻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정보센터는 자료기획과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시행, 납본제도 운영, 국가서지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서지 구축, 각종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서지데이터의 표준화 업무, 전거데이터 및 주제명표목표 관리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 업무를 자료수집과 자료정리, 서지표준화 등 유사한 단위로 묶어서 기능 중심으로 부서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서지정보센터 추진단이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일종의 소규모 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서지통정 기능 범주인 자료수집, 자료정리, 서지표준화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서지통정은 상호 협조적이며 분산화된 국제적인 범주의 웹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국의 서지를 완벽하고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저평가되었던 서지통정 시스템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서지통정 시스템으로 조직을 재배치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기능 재조정이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전

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기존 부서에서의 기능이 관 및 폐지로 인한 인력감축 등 인력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폭넓고 세심한 분석과 계획이 선행되어 탄탄한 정보자원조직을 바탕으로 서지 데이터의 활용이 최대화되고 서지 레코드의 공유와 공조가 이루어져 모든 도서관의 서지 생산의 효율성, 더 나아가 지식 생산의 가능성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4.2 서지데이터의 고품질화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리 인력의 부족과 미정리자료의 증가를 이유로 2004년 이후부터 도서관의 핵심 업무인 서지통정 업무를 아웃소싱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의주한 자료는 대부분 새롭게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납품된 데이터 품질이 매우 낮고, 외주업체의 목록 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정옥 2004). 노문자(2005)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국가서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준 데이터로서의 신뢰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은 흔들리게 되었으며, 사서직의 정체성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포옥과 노옥림(2004)도 대학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레코드 참조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KERIS에 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참조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서지데이터 작성·배포를 담당하는 국가문헌정보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기본적으로 서지통정 작업에는 비용과 인력,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립도서관이 서지통정 기능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서지데이터를 생산하면, 도서관 자체적으로 목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들은 목록 작성 시 신뢰도 높은 서지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서지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통정 기능을 단지 도서관 내부의 비용 절감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국립도서관으로서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안목에서 이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전문 사서가 서지를 작성하여 국가서지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 자료가 급증하는 웹 정보 환경에서 국립

중앙도서관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온·오프라인 정보자원에 대해 완벽한 국가서지데이터를 작성하고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내 대학도서관 공동목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 국내 서지통정 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및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4.3 서지통정의 제반 연구 기능 강화

서지통정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과거부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선진국의 국립도서관에서 개발한 관련 표준이나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내 실정에 맞게 변용·수정하는 수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진 국립도서관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데에만 급급하였으며, 전거통제나 주제명표목, 로마자 변환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서지통정 활동조차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LC의 경우, 조사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부서를 두지 않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의회도서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자 그룹을 발족시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통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 기능을 서지통정 전담 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지통정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립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서지통정 기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기능이 뒷받침되어 국내의 서지통정 동향을 신속하게 조사·분석하고, 국내 서지통정 활동의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과 표준을 지속적으로 연구·배포함으로써 그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정보 조직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바로 서지통정으로 이는 서지 데이터의 생성, 저장, 조정과 검색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래서 Svenonious(1981)는 서지통정이 검색을 위한 지식 또는 정보 조직의 기술이나 예술이

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서지 통정의 필요성과 각국의 국가대표 도서관의 기능 중 서지통정 업무 현황 파악과 비교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통정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 사례 조사 결과, 미국의 LC는 수집·서지접근부, 영국의 BL은 장서수집·기술부, 일본의 NDL은 수집·서지부, 덴마크의 왕립도서관은 DBC에서 독립적으로 서지통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담당 부서의 인원 수도 수백 명에 이르렀는데, 한국은 자료관리부 전체 인원이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선진국은 국립도서관의 핵심 기능으로 국가서지데이터 작성과 종합적인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전문 사서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리 인력의 부족과 미정리자료의 증가를 이유로 2004년도 이후부터 도서관의 핵심 업무인 서지통정 업무를 아웃소싱하다가 2010년에 국가서지정보센터 추진단을 만들면서 서지통정의 전문성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서지통정 기능의 변화 방향과 이를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도서관연구소는 서지통정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통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 독립적인 서지통정 전담 부서 설치, 둘째, 서지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셋째, 서지통정의 제반 연구 기능의 강화를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 서지 통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한국의 서지 통정과 세계 서지 통정 시스템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상호 협력적이며 분산식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규모의 웹 기반 세계 서지 통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곽동철, 2004.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수립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205-227.
국립중앙도서관, 2009. 『2008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國立國會圖書館. 2009. 『國立國會圖書館年報平成20年度』.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online]. [cited 2010. 5.10].
 <<http://www.ndl.go.jp/jp/publication/annual/h20/nen20.pdf>>.
- 根本彰. 2003. 『문헌세계의 구조: 서지통정론 서설』. 조재순 역. 서울: 도서관협회. 원전: 文獻世界の構造: 書誌コントロール論序説. 東京: 勁草書房, 1998.
- 김선애. 2009.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시도서목록(CIP) 서지레코드의 평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5-15.
- 김포옥, 노옥림. 2004. 목록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1): 145-172.
- 노문자. 2005. 국립중앙도서관 정리업무의 아웃소싱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203-231.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안인자, 황금숙, 노영희. 2008. 직무분석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사서의 핵심업무 및 전문사서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1): 129-148.
- 윤정옥. 2005. 서지 유틸리티와 CIP 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OCLC와 미국국회도서관 CI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349-367.
- 윤희윤. 2006. 주요 선진국의 국립도서관시스템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5-31.
- 윤희윤. 2008. 도서관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5-27.
- 윤희윤, 윤혜영, 김신영, 김지홍, 권희정, 구분권, 이재민, 정기섭, 김일영. 2008. 『국립도서관 체계의 전략적 정립방안 연구: 주제별 국립도서관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한국목록규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 横山幸雄. 2005. 목록 서비스와 서지조정: 국립국회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21세기의 목록과 국가서지정보정책』, 2005년 10월 18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Ambrožičič, Melita, Jakac-Bizjak, Vilenka and Mlekušš, Helena Peččko. 2003. Performance evaluation in european national libraries: state-of-the-art. In *The 69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1-9 August 2003, Berlin, Germany)* [online]. [cited 2010.8.10].
 <http://archive.ifla.org/IV/ifla69/papers/024e-Ambrozic_Jakac-Bizjak_Mlekus.pdf>.
- British Library. 2009.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8/09*. London: British Library [online]. [cited 2010. 5.10].
 <<http://www.bl.uk/about/annual/2008to2009/full.pdf>>.
- Chan, Lois Mai. 2007.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Lanham, Md.: Scarecrow Press.
- Det Kongelige Bibliotek. 2009. *Forskning på det Kongelige Bibliotek: Årsberetning for 2008*. København: Det Kongelige Bibliotek [online]. [cited 2010.6.5].
 <http://www.kb.dk/da/kb/nb/forsk/download/KB_Forskningsaarsberetning_2008_onlineudg.pdf>.
- Feather, John and Sturges, Pau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London: Routledge, 2003.
- Kent, Allen. 1968.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19. New York: Marcel Dekker.
- Library of Congress. 2009. *Annual report, FY 2008*.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online]. [cited 2010.5.10].
 <<http://www.loc.gov/about/reports/annualreports/fy2008.pdf>>.
- Library of Congress 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 2007. *Report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 [online]. [cited 2010.5.26].
 <<http://www.loc.gov/bibliographic-future/news/lcwg-report-draft-11-30-07-final.pdf>>.
- Lor, P. J. 1997.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Paris: UNESCO [online]. [cited 2010.8.14].
 <http://www.unesco.org/webworld/nomination/s/guidelines1_h.htm>.
- Marcum, Deanna B. 2008. The Library of Congress and cataloging's future. *Cataloging & Classification*

- Quarterly, 45(3): 3-15.
- McKeen, Liz and Parent, Ingrid. 2000. The National Library of Canada: organizing information for the new millennium,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0(1): 21-34.
- National Diet Library. 2009. *Trends of the past year: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FY 2008* [online]. [cited 2010.8.6].
 <<http://www.ndl.go.jp/en/publication/annual/2008/2008trends.pdf>>.
- Svenonius, Elaine. 1981. Directions for research in indexing, classification, and cataloging.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5(1): 88-103.
- Olson, Michael P. 1996. *The Odyssey of a German National Library*. Wiesbaden: Harrassowitz.
- Taylor, Arlene G. and Joudrey, Daniel N. 2009.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 The Royal Library. 2009. *English summary from the annual report 2008* [online]. [cited 2010.8.6].
 <http://www.kb.dk/export/sites/kb_dk/da/kb/aarsberetning/aarsberetninger/Summary2008.doc>.
- <웹사이트>**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cited 2010.5.23].
 <<http://www.nl.go.kr>>.
- British Library Homepage. [cited 2010.5.10].
 <<http://www.bl.uk>>.
- Library of Congress Homepage. [cited 2010.5.10].
 <<http://www.loc.gov>>.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and Acquisitions Homepage. [cited 2010.8.10].
 <<http://www.loc.gov/aba/>>.
- National Diet Library Homepage. [cited 2010.5.10].
 <<http://www.ndl.go.jp/en/index.html>>.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ited 2010.5.10].
 <<http://www.nla.gov.au/>>.
- The Danish Bibliographic Centre. [cited 2010.5.10].
 <<http://www.dbc.dk/english/>>.